

시론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근 공포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 생활과 기업 운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이 바뀌게 된다.

우선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작년 한해 동안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뒤로 유예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소득세법상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된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새롭게 바뀌는 세법 규정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충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다음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연장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과 발전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연장된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규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승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연장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및 징수된다.

또한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감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기부금 문화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설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개선됐다.

다음으로 기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여기에서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외의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 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한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 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社說

물심양면 제주항공 유가족 지원 자원봉사 활동 감동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 시신 인도도 모두 일단락됐지만 유가족 지원은 중단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에도기간이 끝나고 유족과 지원자들이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 잠시 떠난 무안국제공항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그동안과 다를 바가 없다.

안타까운 참사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나눔 활동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까지 현장 수습, 유가족 지원, 교통 안내, '사랑의 밥차' 운영을 통한 식사와 물품 지원, 재난 심리 등에 5천500명이 참여했다. 매일같이 커피·유자차·생강차 300인분을 준비해 제공하는 목포시 거주 청각장애인 부부, 손수건 600장에 편지를 적어 유족에게 나눠주면서 아픈 사연을 나누는 경기 수원원의 작가, 후원품 이송과 물품 배부, 환경정화 등을 펼치는 미국 시애틀 거주 부부 등이 그들이다. 전국적으로, 해외에서 찾아온 이들은 각기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용한 봉사'를 자처하고 있다.

희생자들이 부푼 기대를 품고 여객기 탑승 속을 밟았던 무안공항 대합실 1·2층은 가족, 친척, 지인의 소식을 기다리는 통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족들은 대부분 장례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다시 공항에 모인다.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진상 규명을 기다리기로 했다. 또 18일에는 활주로에서 합동위령제가 열린다. 전국에서 수많은 추모객이 찾으면서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전남도청, 전일빌딩245, 시·군·구 등 광주·전남지역 분향소 운영도 연장했다. 조문을 통해 남긴 방문록과 메시지도 49개가 치러지는 다음 달 초까지 유지·보관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공황을 누비며 유가족을 지키고 있다. 유족도 물심양면으로 도운 봉사자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린 재난 현장에서 이웃을 살리는 공동체 정신이 빛나고 있다. 조금이나마 위로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결같은 달려온 봉사자들의 선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한 명도 억울함 없어야...무기수 재심 무죄의 교훈

무기수 김신혜가 자유의 몸이 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을 살던 김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자백과 주변인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으며 범행 수법 자체가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씨는 2000년 3월 안도군 안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기소됐다. 이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같은 해 8월 무기징역에 처해졌으며 김씨의 항소와 상고가 줄줄이 기각되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백이 거짓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심 또한 주목받았다. 반인권적 감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박준영 변호사 등을 통해 활기찬 것으로 법원은 2015년 신청을 수용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위법 수사를 부인하고 범인은 김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결론은 무죄였다. 수년 간 각종 쟁점을 노출하며

지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고, 재심 청구 9년 만에 서야 결정이 났다. 변호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검찰이 항소하면 2심이 이어질 수 있다.

여러 방송프로그램과 여론을 통해 재조명됐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원통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며, 무고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되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고 하겠다.

장흥교도소 앞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 대신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만에 풀려난 장동익 씨가 마중하며 위로를 건넸다. 출소한 김씨는 "잘못된 부분이 곧바로 고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죄인 취급을 받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조속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가 되지 못하면 만사(亡事)가 된다. 요즘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6일자로 단행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인사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친인척 특혜, 특정 지역 출신 편향 등 의혹이 제기되며 청사 안팎에서 비반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소수 직렬 안배, 경력,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진 적격에 심한 하위직 승진을 대폭 확대해 조직 활력 강화와 사기 진작에 초점을

인사(人事), 만사(萬事), 망사(亡事)

맞췄다고 밝혔으나 일부 인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4급과 5급 승진 및 승진의결 인사를 두고 시장 측근 전직 간부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와 진도 출신 공무원 편향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4급 승진에서는 경력과 나이가 많은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승진 최저연한을 갖 남긴 공무원이 발탁돼 기준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급 승진의결에서도 경력이 부족한 공무원이 발탁된 사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직렬 5급 승진의결에서는 두 차례 탈락했던 A팀장이 많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또다시 전보됐으며, 반면 A팀장이 맡았던 직위의 팀장들은 이번에도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직렬 무시와 잦은 전보 그리고 일부 동장들의 잦은 전보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과 조롱이 이어졌다.

공감을 얻지 못한 인사는 조직과 구성원의 사기저하와 직결되고, 질 낮은 서비스로 이

어 지게 되면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되고 결국은 조직 구성원과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소해나과(巢毀卵破), 새 동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집단이 약화되고 무너지면 그 구성원도 피해를 입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일터에서 행방불명한 직원이 최고의 상품서비스를 만든다.

높은 사람이 되기는 쉬우도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천하의 안목으로 봐야 천하가 보인다. 우리는 모두 연대적 책임이 있다.

욕심이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탐욕의 신이 눈을 뜨는 법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가 되지 못하면 망사(亡事)가 된다.

아무리 탄탄한 조직도 쉽게 약화되고 무너지고 마는 법이다. 흔히 말하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인사철학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가 되지 못할 때는 망사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을사년'은 '안전 대한민국'을 이루는 원년의 해로

독자투고



2024년에도 크고 작은 화재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되겠지', '괜찮겠지'라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생활편의주의로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가 많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안전의 주체는 행정관서가 아닌 우리 개개인이라는 인식이 뿌리박혀야 한다. 그래야 내 자신, 가족, 직장동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다'는 속담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불조심 표어처럼 다른 사람이 바보처럼 '기우(杞憂)'라고 할지언정 안전에 있어 돌아보고 확인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안전'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을 때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을사년'에는 인재(人災)에 의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동료의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되겠지', '괜찮겠지'라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생활편의주의로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가 많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안전의 주체는 행정관서가 아닌 우리 개개인이라는 인식이 뿌리박혀야 한다. 그래야 내 자신, 가족, 직장동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다'는 속담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불조심 표어처럼 다른 사람이 바보처럼 '기우(杞憂)'라고 할지언정 안전에 있어 돌아보고 확인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안전'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을 때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을사년'에는 인재(人災)에 의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블랙아이스, 알면 피할 수 있다

최근 한파와 도로 곳곳에 생긴 블랙아이스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습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구간 통과 시는 평소보다 50% 감속운행 해야 한다. 블랙아이스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 쌓인 도로보다 6배 더 미끄럽다.

둘째,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스노우체인을 준비해 기상 여건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내 탑재가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의 규격은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조사 권장 규격 스노우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동절기에는 브레이크 상태, 각종 오일류, 부동액, 배터리, 와이퍼, 등화장치, 타이어 상태 등 전문 정비업체를 통한 사전 정비와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 운행중에는 전·후방 교통흐름을 상시 살펴 양보와 안전·방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사항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민아·정충경찰서 행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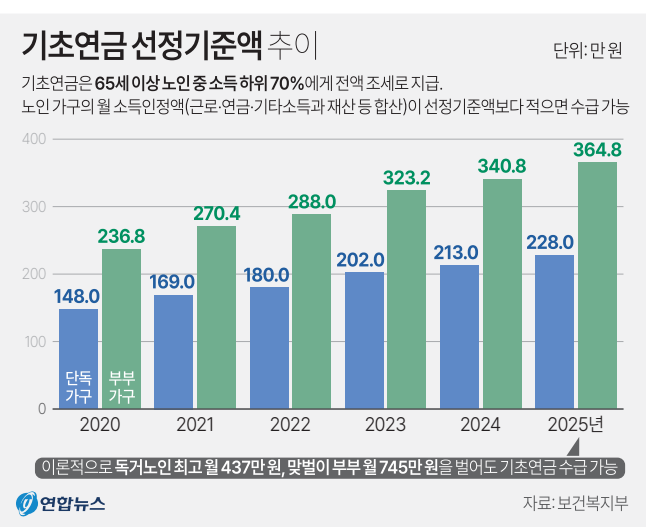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초고령사회 상황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속 상향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형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